“검단선사는 진감국사 혜소 스님”

고창 선운사 보은염 학술세미나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검단선사와 보은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30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1500년의 값진 인연, 선운사의 보은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송화섭 전주대 교수가 ‘선운사 검단선사 설화의 문화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안후상 고창북고 교사가 논평자로 나섰다. 또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선운사 역사 속에 나타난 검단선사와 보은염의 위상과 의의’에 대해 발표하고 이창구 전북불교대학 학장이 논평자로 나섰다.

학술대회에서 송화섭 교수는 그동안 고창 선운사를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검단선사가 진감국사 혜소 스님(774~850)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송 교수는 그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검단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사찰은 경기도 파주 검단사와 선운사 단 2곳뿐인 점을 들었다. 파주 검단사는 신라 문성왕9년(서기 847년)에 혜소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운사와 검단사 창건시기가 약 270년 차이나지만 검단선사 명칭은 두 사찰의 창건연대를 밝혀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치원이 기록한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문에 진감선사는 얼굴이 검어 흑두타로 불렸고, 흑두타는 검단으로 불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고창 출신인 조선조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속칭 검단선사는 진감선사’라고 기술된 점을 들었다.



고창 선운사는 9월 30일 경내에서 ‘검단선사와 보은염’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검단’ 명칭 선운사 등 2곳뿐
‘진감선사=흑두타=검단’ 불려
“과학적 · 합리적 연구 기대”

송 교수는 “선운사 검단선사 설화는 구전설화가 아닌 실제 검단리, 검당포, 염정 등 진감선사 행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일 수 있다”며 “검단선사와 선운사의 연관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나선 안후상 교사는 이 같은 송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진감국사대공탑비에 선운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과 검단선사가 소금 굽는 기술을 어디에서 체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선운사가 백제시대 사찰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도 ‘선운사 역사 속에 나타난 검단선사 및 보은염의 위상과 의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송 교수의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선운산과 포구너머 능가산이 모두 선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동국여지승람〉에 ‘무장 선운사에 침향이 많이 나는데 검단선사가 묻어놓은 것으로 후손에게 남겨 불사에 사용하게 했다’는 서술 등을 근거로 검단선사가 진감선사 혜소 스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송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검단선사가 도적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 양민으로 교화했다는 보은염 설화에 대해 유교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시기인 고대 종교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보은염 설화는 단순히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답차원이 아니라 보은의 실천이 반야의 지혜를 알고 스스로 부처되는 길이라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향후 신앙적으로 미륵사상과 지장신앙, 관음신앙이 화엄사상과 계율사상의 유기적 상관성을 통해 선운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평에 나선 이창구 학장은 검단선사가 진감선사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감국사 혜소 스님의 자료에서 선운사와 관련된 기록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혜소 스님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범패의 선구자로 칭송받고 있다는 점에서 범패와 선운사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검단선사가 곧 혜소 스님이라는 주장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중흥, 6대 실천과제로 잇는다

화엄문도회, 사찰운영 비전 과제 채택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11일 화엄문도회를 열고 향후 화엄사 운영에 비전을 논의했다.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 도철 스님, 덕문 스님을 비롯해 50여 스님이 참여한 문도회에서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 소외된 스님이 우선시 되는 복지, 교구스님 모두와 함께하는 복지’라는 주제로 6대 과제를 채택했다.

6대 과제는 △교구의 원융화합 △본 · 말사 상생 실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수행환경 마련 △세대 · 지역별 포교 전략 수립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행문화 공동체 실현 등이다.

교구 원융화합 · 본말사 상생
수행환경 개선 · 포교 전략 등

교구의 원융화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중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평한 인재등용 보장’이 추진되며, 원로스님이 참여하는 교구운영위원회 정기 개최와 권한 확대가 제시됐다. 본말사 상생 실현은 교구제정살림 안정화, 도심포교 거점사찰 선정 육성, 교구차원의 말사 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한 수익사업 다각화, 교구 내 주요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 수도권 거점 사찰 육성, 광주전남지역 도심포교 도량 설치, 교구 사무분화 및 행정 사무처 확보, 말사 종무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실천한다.

최근 불교계의 가장 큰 화두인 노후 수행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화엄사 공동수행처 조성, 교구 대중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교구 전담 의료기관 지정 도입 ·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연금 지원(원로스님 특별 연금 지급 · 복지법인 설립 · 지급대상자 확대), 다비장 시설 마련(기존 연화장 규모 확충 · 다비장 신설), 복지제정 안정(자체 수익사업 통한 연금 보유고 확대 · 전국단위 재가 후원회 결성) 등이 실천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세대 · 지역별 포교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포교거점인 화엄불교타운 조성,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운영, 화엄사경원 설립, 농촌 특화형 포교 전개 등을 실천한다. 불교문화 부흥과 지역사회 발전은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육성,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수행문화 공동체 실현은 도광 · 도천 스님 추모 및 선양사업, 승려수행 교육 교구책임제 실현(선원 지원금 확대 · 강원 및 대학 등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승가교육연수 프로그램 강화) 등을 진행한다.

6대 과제의 추진에는 정확한 예산 책정과 재원마련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화엄사 측은 “수행연금과 노령연금 1억2천만원, 선원수좌연금 1억8천만원, 학인스님 지원 5800만원, 의료지원 1억원 등 총 3억7천만원 정도가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승려복지분담금 부과, 문중차원의 기금 마련, 화엄사 수 · 말사 특별 분담금 배정, 자체수익사업, 재가후원회 결성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18대 전북종무원장에 진성 스님

단독 입후보… 영산작법 발전 등 11개 공약 세워



한국불교태고종 제18대 전북종무원장에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도광)은 10월 12일 종무원청사에서 제57차 전북교구지방종회를 개최하고, 제18대 종무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진성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북교구 종회부의장 종헌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교구종회는 총 14명의 종회의원 중 9명이 참석했으며 4명의 종회의원이 위임하고 1명이 불참했다.

진성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학연, 지연, 문도연 등 모든 관행을 타파하고 전북 태고종도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전국 최고 종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선출에 앞서 △자문위원회 구성 △종무기관 확대 △태고불교문화대학 교육기관 운영 △영산작법 전시관 운영 △영산작법 시연회 및 체험실 운영 △영산작법 해외공연 추진 △연 3회 이상 종도사찰 순례 △연 1회 종도 나눔 화합축제 개최 △전북교구 홈페이지 구축 △신도 조직화 활성 △태고진묵장학회 설립 등 11개 공약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겨울나기, 사찰이 책임져요”

진안지역 사찰, 취약계층 연탄 나눔



진안 마이산 탑사, 쌍봉사, 광명사, 고림사 등 진안지역의 사찰들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의 연탄을 전달했다.

진안지역 사찰들은 9월 28일 진안자원봉사센터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총 51가구에 1만53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연탄 나눔행사에는 탑사 총무국장 정해스님,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스님 등 스님들과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등 불자 20여 명이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추위가 찾아오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환절기를 맞아 난방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 가구당 300장씩의 연탄이 전달됐다.

마이사 탑사(주지 진성)는 진안읍 양현자 씨 등 저소득 가정과 독거어르신 15가구에 4,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쌍봉사(주지 보경)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불자들의 힘을 모았다. 쌍봉사 섬김봉사단 불자들은 진안읍 박영순 어르신 등 독거어르신 가정에 총 1,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고림사(주지 성목)도 이날 연탄나눔 행사에 동참해 1,500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수용자 위한 송편 나눠

형편 어려운 수용자 자녀 위한 장학금도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의 추석 명절나기를 위해 송편을 나눴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정읍 일광사 주지)을 비롯해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일반교화분과위원들은 9월 26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해 구지서 소장에게 1,500명분의 송편을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수용자들을 위한 송편 나눔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각 종교분과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죄과를 깊이 참회하며 고향의 향취와 가족을 생각해 열심히 수용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지서 소장은 “수용자들이 명절에 조상의 은덕을 기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교정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수용자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원과 임원들은 모범 수용수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임모 씨 등 8명의 수용자에게 각 3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전주교도소 수용자 중 뼈저린 자아반성과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수용자를 선발해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